

옛 도청앞 분수대 44년만에 새단장

동구청, 문화전당 개관 맞춰 6억 들여 정비사업 추진

5·18상징 장소...원형 유지 등 충분한 논의 이뤄져야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자 광주지역 대중집회의 장소로 불리던 옛 전남도청 분수대가 44년 만에 새단장된다.

분수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보수만 할 것인지, 원형을 허물고 새로운 형태의 분수대로 만들 것인지 여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옛 전남도청 철거와 5·18 민주광장 바닥 조성공사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과 반목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9월 예정)을 앞두고 예산 6억 원(시 특별조정교부금)을 들여 옛 전남도청 5·18 민주광장 앞에 설치된 노후 분수대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이달 안에 해당 분수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설계용역을 발주한 뒤 오는 4월 공사를 시작, 상반기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구는 해당 분수대가 5·18 사적지 27곳 중 거의 유일하게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시·5월 관련단체와 사전협의 등을 거쳐 분수대 원형 유지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구가 분수대 새단장에 나선 이유는 노후화된 시설인데다, 5년여 전 금남지하차가 지하주차장 공사 중 발생한 냉각탑 붕괴사고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 때문.

지난 2010년 5월 19일 오후 5시30분께

동구 금남로 1가 금남지하차가 지반이 무너지면서 지상에 설치된 냉각탑 3개 중 1개가 붕괴됐다. 구는 당시 사고 여파로 사고 현장에서 약 15m 떨어진 분수대 하부 지반도 약해져 침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구의 이번 보수·보강공사 결정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필연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지만 보수·보강 등 공사방식에 따라 시와 구, 5월 관련단체간 진통이 예상된다.

분수대는 5·18 사적지 중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사적인데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이 한데 모여 민주화운동을 이끌어낸 상징적인 장소라는 이유로 5월 관련단체가 새로운 형태의 분수대 공사방식에 대해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동구 관계자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다. 안전이 우선 아니겠느냐”라며 “시와 5월 관련단체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설면적 615㎡(186평)인 분수대는 지난 1971년 설치됐다. 모터펌프(14대)·수중조명등(180개)·분사노즐(577개) 등으로 구성된 분수대 관리는 구에서 맡아하고 있다.

분수대는 지난 2010년 6월 냉각탑 붕괴 사고 직후 가동이 중단됐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물줄기 끊긴 분수대 광주시 동구는 오는 4월 정밀안전진단 등을 거쳐 옛 전남도청 광장 분수대 정비사업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 2010년 6월 냉각탑 붕괴사고 이후 가동 중단된 분수대.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22 | 해질 18:12 | 달뜨기 01:46 | 달지기 12:29

출근길 칼바람

중국 상해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맑음	-4/6	보성	맑음	-6/5
목포	맑음	-3/4	순천	맑음	-3/6
여수	맑음	-2/6	영광	맑음	-5/5
나주	맑음	-7/6	진도	맑음	-4/5
완도	맑음	-3/5	전주	맑음	-5/6
구례	맑음	-6/5	군산	맑음	-6/4
강진	맑음	-5/5	남원	맑음	-7/6
해남	맑음	-6/5	홍산도	맑음	0/4
장성	맑음	-7/5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안바다	북서~북	1.0~2.0	서~북서	0.5~1.0
남부	안바다	북서~북	1.5~2.5	서~북서	0.5~1.5
안바다	안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0
남해	안바다(동)	북서~북	1.5~2.5	북서~북	1.0~2.0
서부	안바다(서)	북서~북	1.0~2.0	북서~북	1.0~1.5

생활지수

동파	25
운동	40
빨래	70

주간 날씨

14(토)	15(일)	16(월)	17(화)	18(수)	19(목)	20(금)
☀	☁	☁	☀	☀	☀	☀
-2/12	3/12	5/8	2/7	-1/10	1/11	1/10

법원, 강제낙태·정관수술 한센인에 국가 배상 판결

국가가 한센인들에게 자행한 강제 낙태·단종(정관수술)에 대해 피해를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12일 강제 낙태·단종을 당한 한센인들 20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83명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단종을 당한 피해자 171명에게 3000만원씩, 낙태 피해자 12명에게 4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엔 소송을 낸 피해자들 중 '한센인 피

해사건 진상규명 위원회'의 운영 기간이 끝나 피해자로 규명을 받지 못한 20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광주고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같은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데 이어 두 번째이다. 첫 소송에는 피해자 19명이 참여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국한센인총연합회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이뤄진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항소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한빛원전 방사성폐기물 3만ℓ 무단 방류

새정치 권은희 의원 밝혀

영광 한빛원전에서 액체 방사성 폐기물 3만ℓ가 무단 방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6시42분부터 9시23분까지 161분 동안 한빛원전 1호기 세타배수 탱크에 있던 다량의 액체 방사성 폐기물이 방사선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로 바다에 방출됐다. 세타배수 탱크에는 방사선 관리구역 내에서 작업 종사자가 착용하는 방호복, 양말, 장갑, 두건 등을 세탁한 세탁수 2만9071ℓ가 들어있었다.

원자력발전소는 세타배수 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다음 '방사성 핵종'이 검출되지 않으면 24시간 이내에 세타배수

방출밸브를 열고 액체유출물 감시기를 통과시켜 방사능 오염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권 의원 측의 설명이다.

원자력안전법 제26조에는 '발전용원자로 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한빛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권은희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 정상적인 징계조치를 내리고, 한수원도 주민들에게 내용을 상세히 알리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교사 '막말' 엄단... '벌금형'도 교단서 퇴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

지난해 강력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 시행된 데 이어 최근 교사의 부적절한 말에 대한 법원의 처벌 판례가 나오에 따라 앞으로 교사들이 '막말'로 인해 교단에서 퇴출당하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언어 폭력 사례가 줄어들고 교사들의 인권 의식도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사들이 처벌 가능성을 의식, 적극적인 학생 지도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보육교사와 달리 국립 초·중·고교 교사의 신분은 원래 국가공무원법으로 보장받

았다.

따라서 집행유예 조건이 붙은 징역형을 포함,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공무원 자격을 박탈당해 교단에서 퇴출되는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각종 유형의 학대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작년 9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복지법이 개정돼 상황이 바뀌었다.

신체·정신적 학대, 성범죄 등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되면 교육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법규가 신설된 것이다. 이제는 교사가 부적절한 말을 했다 기소돼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교단에서 퇴출당한다. /연합뉴스

무등산·월출산 일부 탐방로 산불예방 위해 통제

16일부터 3개월간

무등산, 월출산 등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가 산불 예방을 위해 통제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불철 산불 예방을 위해 3개월간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가 통제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지리산·한려해상·다도해해상·월출산·무등산 탐방로가 통제된다. 무등산 통제 구간은 서석대~천왕봉~군부대입구 등 8개 구간, 월출산의 경우 무위사~미왕

재 등 3개 구간이다. 통제 구역에 출입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0만~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knps.or.kr)를 참조하면 된다. /김형호기자 khh@

◇바로잡습니다=광주일보 12일자 7면 '보성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금품·향응 제공 의혹' 기사의 제목 중 수사대상으로 지목된 새마을금고는 '보성 새마을금고'가 아니기에 바로잡습니다.

200% 한정

부동산 담보대출 특별 한시판매

최저 연 3.3%~

상기 금리는 APT담보대출 기준이며, 담보물건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근린상가
단독주택
나대지
원룸

담보 비율 : 최대 70%
최저 연 3.8%~

신용대출
(급여소득자)
(연금수급자)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대출기간 : 최대 5년
연금리 : 최저 7.0%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